

한화그룹, 인천공장에 화약기념관 건립

한화그룹이 그룹의 모태였던 한화 인천공장 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국내 유일의 화약분야 전시관인 한화기념관을 건립하고 개관 행사를 가졌다.

11월10일 열린 한화기념관 개관 행사에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그룹 원로 및 사장단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한화기념관은 한국의 화약산업을 개척하며 한화그룹의 성장을 견인했던 인천공장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담고 있으며, 인천공장은 2006년 6월을 끝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김승연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를 성찰하고 선배 한화인들의 뜨거운 혼을 이어받아 끝없는 혁신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한화기념관이 한화인들에게 숭고한 창업정신을 고양하는 도량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화약산업사의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기념관은 인천공장 사무동 건물부지 2540평을 활용해 개관했다. 주 전시관인 본관과 화약 제조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조공실, 임직원들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했던 채플(기도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시 터전과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

본관에는 국내외 화약산업의 역사 및 화약 이야기, 인천공장의 역사, 고 김종희 회장의 흉상 및 회고 영상물, 화약제품과 기술 전시 및 한화 비전 등이 전시되고 제조공실에는 1세대, 2세대 다이어나이트 제조공정과 실물을 함께 전시했다.

한화기념관의 입장 및 관람은 무료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개관하고 월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휴관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람 순서는 본관, 제조공실, 기도실로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된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1/10>